투데이 칼럼

천년의 숨결 초산성지, 아양산 둘레길과 연결해 시급히 보존을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인체에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이 있다면, 땅에는 문화를 흐르게 하고 사람을 잇는 '길'이 있다.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태롭듯, 지역의 역사적 자산 또한 접근하는 길이 끊기면 잊히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정읍 역사의 시발점이자 마한 시대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의 숨결이 서린 '초산성지(楚山城址)'가 지금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풍화되고 있다. 정읍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 소중한 성지를 보존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아양산 둘레길과 연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도시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해발 232미터의 초산 정상부에는 마한시대에 축조되어 백제 견훤이 요새로 삼았거나 고려시대 외침을 막기 위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기록에 따르면 둘레 450미터에 달했던 이 성곽은 현재 1.5미터 높이의 하단 석축과 70미터의 성벽만이 간신히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 관아 터의 주춧돌과 흩어진 기와 조각들은 이곳이 한때 정읍을 지키던 장엄한 보루였음을 증언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197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낡은 안내판만이 이곳이 성지임을 알릴 뿐, 성터 주위는 잡목과 덩굴이 무성해져 석공이 정성껏 다듬었을 기단석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며 천년을 버텨온 역사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짐'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2021년 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보존과 복원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었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본격적인 복원 전이라도 잡목을 제거하고 잔디를 입혀, 켜켜이 쌓인 세월의 상흔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훌륭한 기반시설인 '아양산 둘레길'이 있다. 4.2㎞의 이 마실길은 5년 전 시내에서 접근하기 좋은 고도에 조성되었고, 지금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통로다. 하지만 정작 아양산과 초산 능선이 만나는 안부(鞍部)에서 초산성지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통로는 단절되어 있다. 이 '잃어버린 300미터' 통로의 연결은 초산동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을 잇는 '역사의 혈관'을 재건하는 일이다. 환경론자들은 산림 훼손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과 개발은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과정이다. 임도(林道)는 산불 등 재난 시 신속한 대응로가 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숲길은 오히려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방패가 된다. 아양산의 현대적 감각과 초산성지의 고전적 가치가 만날 때, 신구(新舊)가 조화된 명품 숲길이 탄생하게 된다.

문화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내발적(內發的) 발전 자원이다. 초산성지 보존과 둘레길 연계는 단순히 길 하나를 더 내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를 위해 행정 당국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둘레길의 식생 정비와 단풍 특화 전략이다. 둘레길에서 시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간벌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단풍나무를 심자. 단풍나무는 독립수로 심을 경우 햇볕에 나무 껍질이 타 들어가는 소피(燒皮)현상이 발생하기 쉬운데, 아양산의 기존 식생과 어우러지게 식재하면 이를 방지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내장산이라는 국립공원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내 산에 단풍 숲을 조성하는 것은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는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다.

둘째, 사계절 녹음수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마실길 조성이다. 마실길 가로수로 느티나무를 50~100미터 간격으로 심어 여름철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고, 박토에서도 잘 자라는 야생화를 식재해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꽃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나무 위주의 조경은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도 탁월한 선택이다.

초산동은 정읍사 망부상, 시립미술관, 예술회관, 곧 들어설 문학관, 산림치유센터 등 문화시설이 밀집한 문화의 메카다. 여기에 초산성지라는 역사적 뿌리가 온전히 복원되고 아양산 둘레길과 연결된다면, 초산동은 명실상부한 '지붕 없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

성루의 기단석을 바라보며 천년 전 석공의 땀방울을 상상해 본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안녕이 오늘날 우리의 번영으로 이어졌듯, 이제 우리가 그 역사의 흔적을 지켜내야 할 차례다.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 초산성지로 향하는 길이 열릴 때, 정읍의 심장 초산동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고동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난민 어린이들과 놀아주는 팔레스타인 산타들

29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 산타클로스와 광대 분장을 한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 작전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주변에서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있다.

왕이 "대만 통일 반대 시도, 모두 실패로 끝날 것"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0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연례 국제관계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대만 통일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 설

원암 오광석 서화동행전

원암 오광석 작가가 서예와 문인화를 함께 엮은 개인전 '서화동행전(書畵同行展)'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1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글씨와 그림이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결을 살려온 작가의 창작 태도를 고스란히 담아낸 자리다. 서예 부문은 금문풍 전서를 중심으로 구성했고, 문인화에서는 화제와 조형이 이루는 균형에 주목했다.

천자문을 전서·예서·해서·행초서 네 가지 서체로 풀어낸 연작이 눈길을 끈다. 금문풍 전서로 완성한 천자문은 전지 11장에 이르는 대작으로, 작가의 집중력과 내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기본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원진묘지명' 임서가 함께 소개된다. 성삼문의 시에서 출발한 묵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을 담은 '복숭아', 연꽃의 군자적 품성을 노래한 자작 한시 '덕진상연', 주돈이의 '애련설'을 수묵으로 재해석했다.

오 작가는 본립도생(근본에 충실한 정통성), 풍류지도(전주의 정서가 깃든 미감), 호남서맥(전북 서단의 계보)이라는 세 축으로 설명한다.

오 작가는 서울에서 배갑진·전정우 선생을 사사했고, 35사단 발령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와 원광대 교육대학원 서예교육과를 졸업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석전 황욱의 서예 연구'(2000)를 썼으며, 2014년에는 '안중근 장군의 생애와 필묵으로 본 정신세계'를 발표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대한민국서예전람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문인화협회 전북지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소곡 김순자 향상일로전

서예가 소곡 김순자 향상일로전(向上一路展)이 2025년 12월 말에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김 작가는 1946년생이다. 내년 2026년이면 80세다.

그는 중학교 시절 친구 집에 놀러 간적이 있다. 당시 문 앞에 커다란 액자가 눈길을 끌었다. 바로 서예였다.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 지인들을 만났다.

특히 지금의 스승 '아하 김두경' 선생을 만난 것이 서예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 김 작가가 붓을 잡았던 이유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다. 그러나 화선지에 젖어드는 묵향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곤 했다.

주변의 응원 속에서 시작한 전시회다. 하지만 한편으론 나만의 세계를 표현하고픈 욕망에 머뭇거려지기도 했다.

김 작가는 삶에도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아름답다고 말한다. 내 삶의 여백이 클수록 사랑과 행복을 넉넉히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80세에 이르도록 한결 같이 서예의 길을 걸어왔다. 박수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양하고 번잡한 현대인들의 일상에 휩쓸리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었다. 서예에서는 글씨를 잘 쓰고 못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삶의 기본이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삶의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글씨 또한 저절로 바르게 될 뿐 아니라 글씨 쓰는 즐거움을 느낀다.

온전한 주기 주도의 생활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서예를 즐기며 사는 삶일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11)

얼른 알려야 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골목길을 빠져 나온 명희는 산을 옆으로 낀 들길을 달렸고 논길을 건너 다시 산을 낀 길로 접어들었다.

저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오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명희는 일단 산으로 숨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순간했다.

"명희야!"

명희는 깜짝 놀라 앞을 쳐다봤다. 강남준이었다. 울음이 터질 것처럼 기뻤다. 명희는 남준에게 달려갔다.

남준은 명희가 달려오자 그 자리에 서서 놀란 눈으로 명희를 바라봤다. 명희는 다짜고짜 남준의 손을 잡았다.

"명희야, 왜 그래?"

"얼른 이쪽으로 와."

명희는 남준을 산 쪽으로 이끌었다. 남준은 손이 잡힌 채 명희에게 이끌려 산으로 올라갔다. 상수리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밤나무들은 갈색으로 색을 바꾼 나뭇잎들을 가을바람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지금 대우 아지씨랑 자위대 사람들이 능림으로 가고 있어."

명희의 말에 남준은 고개를 빼 황진 쪽을 바라봤다.

"아무도 안 오는데?"

명희는 마을회관에서 황진 자위대원들이 모여서 나누던 대화를 말해줬다. 남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게 정말이라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얼른 마을로 가서 알려야지."

말을 끝내자 농사에 남준은 앞뒤 안 가리고 길 쪽으로 내려가려 했다. 내려가려는 남준의 팔을 명희가 붙잡았다.

"저쪽을 봐."

명희는 손가락으로 황진 쪽을 가리켰다. 박대우와 자위대원들이 죽창과 몽둥이, 곡괭이와 도끼를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남준은 멈칫했다. 명희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 강 씨들을 모두 죽이려는 걸까?"

질문에 명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남준의 손만 꽉 잡았다. 남준과 명희의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얼른 알려야 해."

남준은 길도 없는 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가을이라 나뭇잎과 풀들이 말라 있어 나아가는데 그게 방해되지는 않았지만 길이 없는 터라 앞으로 나가는 게 더뎠다.

박대우 일행은 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작정을 하고 가는 탓인지 걸음들이 빨랐고 거의 뛰다시피 했다.

"헉헉, 이러다간 늦을 것 같아, 뛰어야겠어."

남준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손으로 제치면서 달려갔다. 명희도 남준의 뒤를 따라 남준이 내준 길로 뛰었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은몸이 땀으로 젖어버렸고 얼굴도 땀범벅이었다.

손으로 방해물을 밀어냈지만 나뭇가지들은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었고 마른 풀들은 남준의 발목을 잡아챘다.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없이 산속을 달렸다.

그러나 아산은 능림까지 이어져 있지 않았다. 마음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개활지를 건너가야 한다. 가을걷이가 다 끝난 논과 밭은 훵하게 비어 있는 터라 엎드려서 낮은 포복으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박대우 일행에게 노출되기 십상이다.

곽의 일행은 이미 개활지의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남준은 논둑 바닥에 엎드렸고 명희 또한 남준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

남준은 비오듯 온몸에서 땀을 흘렸지만 이랑곳하지 않고 낮은 포복으로 논둑을 이동했다. 무릎이 쓸려서 쓰렸지만 아픔쯤은 참을 수 있었다.

곽 일행은 개천의 놋다리를 건너갔고 콩밭 입구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남준은 개천으로 뛰어들어 바지가 젖는 데도 그대로 건너갔다. 그러나 곽 일행은 이미 능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봉림은 산을 뒤로 이고 개활지 쪽으로 열려 있었으므로 남준은 개활지를 비리고 돌아서 산으로 올라가야 했다.

남준은 마을 뒷산으로 접어들면서 이미 늦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인지 눈에서 벌써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